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상상국어 제2차 모의평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제2차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 답

1	④	2	⑤	3	②	4	④	5	④
6	④	7	④	8	⑤	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①	15	③
16	④	17	②	18	⑤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⑤	27	④	28	①	29	⑤	30	③
31	③	32	⑤	33	④	34	④	35	⑤
36	⑤	37	③	38	④	39	②	40	⑤
41	④	42	④	43	④	44	④	45	③

해 설

[1 ~ 3] (화법)

1. [출제의도] 강연자가 사용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강연자는 교정 부호를 소개한 후 각 부호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 '알파벳 V자처럼 생긴', '돼지 꼬리가 붙은 것처럼 생긴', '조금 큰 V자 형태', '넓적한 대야처럼 생긴', '글자가 방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등과 같이 교정 부호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청중이 교정 부호를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때 사용'한다는 부분이나, '교정 부호는 평생을 두고 활용하게 될 유용한 부호'라는 부분은 강연 대상인 교정 부호의 활용 가치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연자가 이러한 가치를 밝히기 위해 교정 부호의 장점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이 강연에서는 교정 부호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 강연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강연자가 작문 시간 이야기를 꺼내며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교정 부호의 유용성과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강연자는 각 교정 부호를 하나씩 설명한 다음 새로운 화면을 제시하며 배운 내용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연을 마무리할 때 교정 부호에 대해 설명한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강연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강연 내용을 실제의 글에 활용된 교정 부호를 통해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은 아래의 문장을 그 앞 문장의 바로 옆으로 이으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에서 문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ㅅ은 맨 앞의 한 칸을 띄우라는 의미로, 문단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 ㅅ의 의미를 아울러 판단하여 이 글을 교정 부호에 따라 고치면 '어린 시절에는~썼던 기억도 난다.'까지의 한 문단과, ㅅ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한 문단, 이렇게 두 문단으로 구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벌어진 곳에 아무런 글자가 없으므로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어 쓰라는 부호이고, ㅇ은 벌어진 부분에 적힌 글자를 추가하라는 의미를 지닌 부호이다. 이 두 부호는 위에 글자가 적혀 있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 가능하다.

② ㉡은 한 글자를 고치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부호이고, ㅂ은 연이은 두 글자 이상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부호이다.

③ ㉢은 글자들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왼쪽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부호이다. '식별되지'와 '않았다'는 원래 띄어 써야 하지만, 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한 문장이 다음 줄로 이어질 경우 다음 줄의 첫 칸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은 줄을 바꾸라는 의미의 부호인데, 이는 큰따옴표로 작성된 문장 옆에 글을 잇지 말고 줄을 바꿔서 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큰따옴표가 쓰인 문장은 새로운 줄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강연 내용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강연자는 다양한 교정 부호의 모양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강연을 들은 학생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 부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로는 글쓰기를 할 때 교정 부호를 정확히 알아야 글쓴이와 검토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교정 부호는 평생을 두고 활용할 유용한 부호이므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정 부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대표적인 교정 부호를 알아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교정 부호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강연에서 제시된 교정 부호 외에 어떤 부호들이 더 있는지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정 부호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기호를 사용하여 글을 수정하기 시작했는지는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④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글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곤 하는데, 논술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싶을 때 교정 부호를 사용해도 되는지는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⑤ 교정 부호는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고, 그 모양마다 의미 또한 다른데, 이런 교정 부호를 어떤 과정에 따라 정하는지는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4 ~ 7] (화법, 작문)

4. [출제의도] 작성된 글 속에 반영된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 (가)의 1문단에 '광고를 주제로 열리는 학교 토의 마당의 사회를 맡게' 되었고, 책의 소개 글을 읽으며 '작문 과제와 맞물려 토의의 사전 준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책을 읽었다고 감상 동기를 제시하였다.

㉡ (가)의 2문단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광고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었다고 하여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제시하였다.

㉣ (가)의 4문단에서 '광고가 신화를 만들어 낸다'는 '책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고 하는 등 감상 대상인 『광고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 (가)에서 『광고의 이해』라는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았다.

㉤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은 (가)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제시된 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가)에서 글쓴이는 『광고의 이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터넷 검색이나 TV 광고 감상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즉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책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 독서 과정이 드러나도록 서술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독서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 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후의 독서 활동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② 최근의 독서 경험이 이전의 독서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분석하지는 않았다.

③ 독서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는 부분은 (가)에 없으며 폭넓은 독서의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⑤ 광고에 대한 상반된 인식, 광고가 신화를 만들어 낸다는 내용 등은 독서 대상인 『광고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얻은 정보이고, 이를 인터넷 검색이나 TV 광고 감상을 통해 확인한 것을 정보 검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단계에 따라 책에 제시된 정보를 검증했다는 내용은 (가)에 없다. 또한 인터넷 검색이나 TV 광고 감상 같은 각 방법의 의의도 (가)에 정리하지 않았다.

6. [출제의도] 토의 사회자의 사고 과정과 그에 따른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C]에서 '사회자'는 토의 앞부분에서 '학생 1'과 '학생 2'가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토의 참여자들과 반대되는 시각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토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즉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소개하여 참여자의 의견과 그와 다른 의견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토의에서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참여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는 [토의 상황 파악]으로 적절하지만, [토의 진행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A]에서 '사회자'가 활용한 진행 전략은 '참여자가 했던 말을 재진술하며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겠다는 ㉮가 아니라 '토의 전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겠다는 ㉯이다.

② [토의 상황 파악]과 [토의 진행 전략] 모두 적절하지 않다. [B]에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가 한 말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재진술하며 그 내용을 보충할 것을 요청하였다.

③ '참여자가 한 말 중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좀 더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는 [토의 상황 파악]으로 적절하지만, [토의 진행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B]에서 '사회자'가 활용한 진행 전략은 '토의 전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겠다는 ㉯가 아니라, '참여자가 했던 말을 재진술하며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겠다는 ㉮이다.

⑤ '참여자와 다른 의견을 소개하며 참여자가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는 [토의 진행 전략]으로 적절하지만, [토의 상황 파악]이 적절하지 않다. [C]에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과 반대되는 시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참여자가 한 말 중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좀 더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반대 의견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학생 2'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특정 광고를 보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자가 먼저 제시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일 뿐이다. '학생 2'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토의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반드시 옷이 부족해서일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광고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② '학생 1'은 '큰 건물 벽면, 움직이는 버스, 심지어 작은 종이컵까지 광고가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와 같이 크기가 큰 순서대로 사례를 나열하며 광고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2'는 '광고는 양극화를 심화합니다.'라고 핵심 내용을 먼저 밝히고 '자본이 적은 기업은 자본이 많은 대기업과 광고 제작과 관련한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광고가 너무 많고 그 광고들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학생 2'는 광고 제작에서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광고가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8 ~ 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초고>에서 게임 관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게임이 단순하게 작동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게임과 관련한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강원도 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스마트폰 게임 때문임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였다.
②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걸쳐 2차원 그래픽 게임이 3차원 화면 게임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증강 현실 게임까지 등장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③ 세 번째 단락에서 입체 영상 기술이 더 발전하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증강 현실 게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④ 세 번째 단락에서 입체 영상 기술을 이용해 역사적 인물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한국사 수업 시간을 가정하였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공간과 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센서 기술'에 대한 언급은 초고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기술의 한계 때문에 증강 현실 기술 실현이 느리다는 내용도 초고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에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A]에서 초기의 컴퓨터가 계산을 위해 발명된 기계였고 방 하나를 채울 만큼 컸다고 그 용도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② ㉡의 발달과 관련하여 [A]에서 최초의 게임이 등장하는 배경이 컴퓨터의 소형화와 성능 향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증강 현실'과 대조되는 기술인 '가상 현실'을 [B]에서 제시하고, 가상 현실과 비교하여 증강 현실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별도의 장비 없이도 공룡이나 외계인이 보이는 게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B]에서 언급하며 증강 현실 기술의 구현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과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고쳐 쓴 글에 '게임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은 이용자가 나타날 위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에 '예상할 수 있는 게임의 부작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차 증강 현실은 전시회나 박물관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다.'라는 문장이 초고에 있었지만, 고쳐 쓴 글에는 없다. 이는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삭제한 것이므로 [가]에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 15] (문법)

11. [출제의도] 지문을 통해 어근과 접사에 대해 바르게 추론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①)

지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인 어미가 굴절 접사라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며 이것이 곧 어간이 된다. 지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치솟다'의 경우, 굴절 접사이자 종결 어미인 '-다'를 제외한 부분인 '치솟-'이 어간이 되는데, 이것은 파생 접사 '치-'와 어근 '솟-'을 결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접사이지만, 굴절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미이다.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선어말 어미 등이 있다.
③ '가다'와 '넓다'가 어근과 굴절 접사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파생 접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파생어가 아니라 단일어이다.
④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그대로 단어가 되기도 한다. '나무, 하늘, 바다, 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⑤ 어근이 단독으로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근이 하나만 쓰인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단일어 중 용언은 ③에 쓰인 예와 같이 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기본형을 이루고, 체언이나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은 굴절 접사가 결합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어근이 그대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꽃, 돌, 몹시, 바로, 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구체적인 예를 통해 파생어와 접사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파생어와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은 형태가 같아서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명사 파생 접미사는 품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지만 명사형 어미는 명사의 기능만 하게 할 뿐 품사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의 앞의 '잠'과 앞의 '꿈', 앞의 '춤'은 각각 동사 '자다'의 어근 '자-'와 '꾸다'의 어근 '꾸-', '추다'의 어근 '추-'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된 것이고, 뒤의 '잠'과 뒤의 '꿈', 뒤의 '춤'은 각각 동사 '자다'의 어간 '자-'와 '꾸다'의 어간 '꾸-', '추다'의 어근 '추-'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동사의 활용형이므로 품사는 그대로 동사이다.

[오답풀이] ① '헛-'은 ㉠에서 알 수 있듯이 '고생', '소문' 등의 명사에 결합하기도 하고, '돌다', '디디다' 등의 동사에 결합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접두사가 그렇듯이 '헛-'은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어휘적 접두사이다.
② ㉡의 '괴롭히다', '넓히다', '밝히다', '좁히다'는 모두 형용사 '괴롭다', '넓다', '밝다', '좁다'에 동사 파생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된 예이다. 그러므로 모두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어 주는 통사적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의 '멋쟁이', '사람들'을 보면 명사 '멋' 뒤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하였고, 명사 '사람' 뒤에 접미사 '-들'이 결합하였는데 결합한 이후에도 품사는 그대로 명사를 유지하고 있다. '깨뜨리다'도 동사 '깨다'에 접미사 '-뜨리-'가 결합되었지만 그대로 동사이고, '더욱이'도 부사 '더욱'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지만 그대로 부사이므로 이들은 어휘적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다.
⑤ ㉤의 '같이, 길이, 깊이, 넓이, 높이, 많이' 중에 '길이, 넓이'는 명사로만 쓰이고, '같이, 많이'는 부사로만 쓰이며, '깊이, 높이'는 명사와 부사로 모두 쓰인다. 그러므로 '깊이, 높이'가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는 문장 속에서 그 쓰임을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와 'ㄷ' 받침을 쓰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이 문항은 '젓가락'과 같이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와, '숟가락'과 같이 'ㄷ' 받침을 쓰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의 '바느질+고리'에서 '바느질'의 끝소리는 'ㄹ'이다. 그러므로 '바느질'에 '고리'가 결합한 단어는 'ㄹ'이 'ㄷ'으로 발음되는 것에 따라 'ㄷ' 받침을 써서 '반짇고리'라고 적는다.

[오답풀이] ① '배'와 '가죽'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뱃가죽'으로 쓴다.
② '설-'과 '부르다'가 결합한 단어는 앞말의 'ㄹ'이 'ㄷ'으로 발음되므로 'ㄷ' 받침을 써서 '섣부르다'로 쓴다.
③ '보'와 '둑'이 결합한 단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봇둑'으로 표기한다.
④ '이틀'과 '날'이 결합한 단어는 '이틀'의 'ㄹ'이 'ㄷ'으로 발음되므로 'ㄷ' 받침을 써서 '이튿날'이라고 쓴다.

14.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규정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정답: ①)

표준 발음법 제11항의 적용을 받아 [익찌]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얇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의 적용을 받아 [얄따]로 발음된다.
③ '늙고'는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의 적용을 받아 [늘꼬]로 발음된다.
④ '넓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의 적용을 받아 [널따]로 발음된다.
⑤ '굵다랗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의 적용을 받아 [국따랗다]와 같이 발음된다.

15. [출제의도] 용례를 통해 과거 시제 요소의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이 문항은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과 '-더-', '-던-'의 용례를 보고, 각 용례에서 해당 요소의 문법적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인 ㄷ 예문은 미래 시간과 호응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았-/-었-'이 과거에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닌 일에 쓰인다는 ③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예문 ㄱ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므로 선어말 어미 '-았-/-었-'이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예문 ㄴ은 선어말 어미 '-았-/-었-'이 현재에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예문 ㄹ은 화자가 관찰한 일을 회상하여 전하는 발화이므로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쓰이는 '-더-'의 용법이 실현된 예이다.
⑤ 예문 ㅁ의 '-던'은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16 ~ 19] (기술)

1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4문단에 의하면 분자량이 동일한 경우, 선형의 DNA보다 상보 결합이 풀린 DNA의 이동성이 더 높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 의하면 겔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겔의 구멍 크기는 작아진다.

② 4문단에 의하면 열이나 효소로 DNA를 변성시키면 상보 결합이 풀린 두 가닥의 뼈대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뼈대를 형성하는 인산 결합이 염기 간의 수소 결합보다 열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의하면 크기가 클수록 분자량이 크다. 5문단에 의하면 염기 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크다. 즉 염기 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크고 분자량이 크다.

⑤ 4문단에 의하면 전기영동으로 분리시키려는 DNA 시료는 대부분 열과 효소로 변성시킨 후에 사용한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4문단에 의하면 DNA의 염기는 무작위적으로 배열된다. 즉, 형태에 따라 배열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형태가 동일하면 배열 순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DNA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생체 분자이다.

③ 4문단에 의하면 디옥시리보스와 인산은 DNA의 두 가닥 뼈대를 이룬다.

④ 4문단에 의하면 열과 효소로 DNA를 변성시키면 형태가 바뀐다.

⑤ 4문단에 의하면 DNA는 DNA의 두 가닥에 각각 있는 네 가지 염기들이 상보 결합하여 나선 구조를 이룬다.

18. [출제의도] 지문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2문단에 의하면 시료의 총 전하량이 클수록, 시료를 이동시키는 힘이 커진다. 그런데 시료의 총 전하량은 전해질 용액의 이온 강도를 높이면 높아진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전해질 용액의 이온 강도를 높이면 시료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전류를 100mA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시료의 원래 구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② 시료의 전하량을 조절하는 것은 전해질 용액의 이온 강도이다.

③ DNA 시료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④ 시료를 이동시키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와 시료의 총 전하량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19.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동일한 조각들 사이의 간격이 가장 크다는 것은, 해당 겔에서 이동성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5문단에 의하면 겔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성도가 높아지고 마찰력도 커진다. 마찰력이 크면 이동성을 낮추므로, A의 마찰력이 B의 마찰력보다 작다고 볼 수 있다. 이는 A의 농도가 10%보다 낮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 마찰력이 작으면 이동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C에서는 동일한 염기 수의 조각이 A와 B에 비해 덜 이동했다. 그러므로 C에서 마찰력이 가장 클 것이다.

② 염기 수가 가장 많은 조각은 염기 수가 20,000개인 조각이다. 20,000개인 조각이 가장 위에 있으므로 가장 조금 이동한 것이다.

③ 염기 수가 가장 적은 조각, 즉, 크기가 가장 작은 조각이 C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C의 점성도가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점성도(농도)가 높아야 크기가 작은 조각들을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5문단에 의하면 아크릴아미드 겔은 크기가 작은 DNA 조각들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는 아크릴아미드 겔의 점성도가 아가로스 겔의 점성도보다 높다는 뜻이므로, 둘의 농도가 같다고 해도 이동 간격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0 ~ 26] (사회)

20. [출제의도] 지문의 설명 방식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5문단에서 특허 제도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단점을 보완할 만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특허권 부여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였다.

② 3문단에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보다 진보된 발명이 많이 창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도 '특허권 부여는 기술 진보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를 통해 발명을 촉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라고 제시하여 특허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이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적 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을 소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특허권이 부여되는 지적 생산물의 성격을 배제 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2문단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TV, 잡지, 논문,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하는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산업 재산권 중 발명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특허권은 산업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인 것이다.

② 1문단에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1문단에 '지적 재산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 분야의 디자인이나 발명, 상표에 대한 권리인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지적 재산권은 법이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도 법에 의해 규정된다.

④ 1문단에 산업 분야의 디자인은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된다고 제시하였다. 산업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재품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다.

22.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보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허청이 외국 제약 회사 A의 특허권 신청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는 신약 α가 우리나라 제약 회사 B의 의약품 β보다 현저하게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문의 2문단에 의하면, 선행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비해 현저하게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특허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외국 제약 회사 A의 특허권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신약 α가 선행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현저하게 낫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지문의 1문단에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외국 제약 회사 A의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다.

③ 우리나라 특허청이 A의 특허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신약 α의 제품 자체를 특허권 신청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다. 1문단에 의하면 특허권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발명에 부여하는 것이다.

④ 신약 α의 제조 공정은 약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약업에 속한다. 지문의 2문단에 의하면 의료업은 특허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약업은 포함된다. 따라서 신약 α의 제조 공정이 의료업에 속해 특허권 부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약품 β의 제조 공정과 비슷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의약품이 별도의 사용료 없이 여러 제약 회사에서 제조되어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β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제약 회사 B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23. [출제의도] 지문의 중심 개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4문단에 의하면,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만들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여 발명을 촉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공공재는 특허권이라는 동기 부여 제도가 없으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② 4문단에 공공재는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바람직한 수준만큼 생산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개입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4문단에 공공재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제시되어 있다.

⑤ 4문단에 의하면, 공공재는 처음 생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만들기는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공공재에는 만들고 나면 공짜로 편승해 소비하려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쓰기 때문에 만들게 된다고 해도 만든 사람에게 상당한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4.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5문단에 의하면,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이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면 독점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지게 된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의하면, 기술 진보를 위해 정부는 특허 제도를 운용한다. 기술적 사상의 발명이 촉진되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② 5문단에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독점적 지위를 일정 기간만큼 연장하여 유지'하게 해 준다. 이럴 경우에는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스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손실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

③ 3문단에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발명자에게는 그 발명을 사용한 사람들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보다 진보된 발명이 많이 창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특허 제도를 통해 기술적 사상의 발명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⑤ 5문단에 여러 기업들이 독점적인 특허권을 얻기

위해 중복 투자나 과잉 투자를 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제시되어 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독점적 권리를 얻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특허 제도로 인한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25. [출제의도] 지문의 중심 정보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특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하다. 사회적 비용은 조금 들면서 사회적으로 편리하고 유익한 이익이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문의 5문단에 의하면, 여러 기업들이 특허권을 얻기 위해 중복 투자를 하거나 낭비가 많아지고 사회적 손실이 커질 때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이때 기술 확산의 저해로 인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세는 점차 급격해질 것이다.

2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는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의 의미이다. 그런데 ⑤에서 '습득(拾得)'은 '주워서 얻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와 선지 모두,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와 선지 모두,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와 선지 모두,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와 선지 모두,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27 ~ 31] (현대시) 박용철, 「떠나가는 배」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현대수필) 곽재구, 「묵언의 바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다)의 '당신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은 마을의 불빛들이다.'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대화의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는 독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 대화의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와 (다)가 대화의 방식을 통해 말하는 이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1연과 4연의 '간다'와 '가련다'가 서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만 제외하면 첫 연이 끝 연에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는 첫 연을 끝 연에 반복해서 쓰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의 3연 마지막 행의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시각(새파란 초생달)의 촉각화(시리다)를 통한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나비'의 모습을 보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서술어 '간다', '보낼 거냐', '가련다' 등과, (나)의 서술어 '무섭지 않다', '돌아온다', '시리다' 등은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속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듯한 현장감을 자아낸다.

⑤ (나)의 '흰 나비', '청무우밭', '새파란 초생달' 등에서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의 '순천만의 하늘 위'에 빛나는 '무수한 별빛'과 마을의 '불빛', 그리고 '형형색색의 등'을 켜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등에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나)와 (다)는 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작품에 회화성을 부여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 속 화자와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①)

(가)에서 ⓐ는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라는 시행을 통해 지금 '아늑한 이 항구'를 떠나는 '배'가 자신의 지향인 다음 목적지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는 스스로 나아가는 곳, 즉 자신의 지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는 '쫓겨 가는 마음'으로 '아늑한 이 항구'와 '사랑하던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로야 보낼 거냐'라고 자문하며 '나 두 야 간다'라고 자신의 적극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가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의 글쓴이인 ⓒ는 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묵언을 통해 시의 '날갯짓'을 얻었던 '문학청년 시절'을 회상하고, 순천만 갯마을의 불빛을 떠올리며 '새로운 날들의 시'를 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도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는 '바다'를 '청무우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였다. ⓑ는 새로운 세계인 '청무우밭'을 동경한 것일 뿐 현실에서의 탈출을 꿈꾼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에서 ⓒ는 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순천만 갯마을의 불빛을 떠올리는 것일 뿐, 자연에서의 은둔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는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묏부리 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이라는 구절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그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서 ⓒ는 '과거를 회상하는 버릇'은 '슬픈 짐승들의 운명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문학청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묵언을 통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시의 '날갯짓'을 보았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는 설명은 ⓒ에만 해당한다.

⑤ (가)에서 ⓐ는 '쫓겨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부 세계에 의해 자신의 기대가 꺾이는 경험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에서 ⓑ는 '바다'가 '청무우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돌아온다'라고 하였다. 이는 외부 세계에 의해 ⓑ의 기대가 꺾인 것이다. (다)에서 ⓒ는 자신의 내면 성찰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시를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외부 세계에 의해 꺾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도입부에서 자신이 요즘 시를 쓰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백하며, 시의 날개가 꺾인 것은 '내 숨은 의지'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의 경우 외부 세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 시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는 떠남이라는 공통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보통 고향을 떠나는 것을 제재로 삼은 시에서 향수와 귀향의 염원을 노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가)의 화자는 '아늑한 이 항구'와 '사랑하던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항구'의 아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손쉽게야 버릴 거냐'와 같은 시구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나비'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거나 귀향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지 않는다. '바다'가 '청무우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물결에 날개가 절어 돌아온 '나비'는 <보기>에 따르면 근대 문명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당대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나비'가 '지쳐서 돌아온다'는 것은 타향살이에 지친 존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가)는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이 격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가)의 '눈물로야 보낼 거냐'는 눈물로 보낼 수 없음을 다짐하는 수사적 표현이며, '아— 사랑하던 사람들'은 정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영탄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정든 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화자의 격정적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가 당면한 상황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쫓겨나다시피 했던 식민지 시대의 현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가)의 '쫓겨 가는 마음'에서 무언가 외적인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돌아다보는 구름'은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된 표현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시구를 통해 타의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당대 청년들의 비애를 엿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나)는 막연한 동경을 품고 근대 문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났다가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당대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의 '나비'는 '바다'의 푸른 물결을 보고 그것이 '청무우밭'인 줄 착각하여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려갔다가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돌아오게 된다. 이는 근대 문명의 실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새롭고 화려한 면모에 이끌려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던 당대 청년들의 태도를 '나비'를 통해 보여 준 것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나)는 막연한 동경을 품고 근대 문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났다가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당대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의 '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착각하고 있다. '청무우밭'이라면 '삼월달'엔 나비가 노닐 수 있도록 '꽃'이 활짝 피어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차가운 '물결'뿐이다. '꽃이 피지' 않았다는 구절은 근대 문명의 현실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으며, 그 현실은 막연한 동경으로 근대 문명의 세계에 발을 들이려 했던 청년들에게 매우 냉혹하게 다가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에서 '삶의 가장 소중한 빛'은 시를 쓰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다)에서 글쓴이는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현실을 위해 가장 소중한 빛을 지워버렸다고 하였다. 이는 '내 숨은 의지'로 인해 '날개'가 꺾인 탓인데, 글쓴이는 '바라볼수록 쓸쓸한 그 빛'이라고 하면서 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따라서 ㉢은 시 쓰는 일을 방해하고 자신을 말뚝에 묶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눈물로야 보낼 거냐'에서 드러나듯 고향을 떠나야 하는 화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은 눈물이 고여 시야가 부옇게 흐려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일반적으로 궁궐 안에서 보호받고 살면서 바깥세상의 거친 면모를 접할 기회가 없는 순진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지닌다. (나)에서 '나비'를 ㉡에 비유한 것은 '나비'가 냉혹한 '바다'의 현실에 대해 무지했던 것과, '물결에 절어서' 돌아올 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④ (다)에서 해질 무렵 순천만에 나갔던 글쓴이는 먼저 하늘 위에 빛나는 무수한 별빛을 바라본 뒤, 그 다음 순천만 갯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본다. '하늘의 별과 순천만 갯마을의 불빛들'을 차례로 보며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가 생각하던 글쓴이는 '나의 선택은 마을의 불빛들'이라고 밝힌다. '별빛'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천상의 존재를 상징하는 반면, '마을의 불빛들'은 '꿈과 노동과 상처와 고통의 시간', 즉 지상의 존재를 의미한다. 글쓴이는 묵언이라는 수행을 통해 '별'의 세계, 즉 천상의 절대적인 세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별빛이 아닌 불빛을 택한 것은, 지상의 현실이 유한하고 고통스러울망정,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꿈꾸는 시를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순천만 갯마을의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며 샤갈의 그림을 떠올리고 있다. 샤갈의 환상적인 그림에서는 염소와 새, 초승달과 사람들이 다 같이 초록색 어둠 속으로 날아오른다. '훨훨 날아가렴. 또 다른 어딘가에 마을을 이루고 새로운 꿈을 꾸렴.'에서 드러나듯, ㉤은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묵언은 종교적인 수행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묵언의 핵심은 자아에 매몰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결국 세상과의 소통으로 나아가는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종교적'이라는 표현은 흔히 세속적인 관계와 욕망 등을 단절하고 절대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다)의 '타인의 꿈과 욕망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는 구절도 그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하고 절대적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글쓴이는 묵언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의 묵언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회였을 뿐, 종교적인 수행을 통한 세속적 욕망의 초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본질적이라고 하였다.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요즘 시를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가 언어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글쓴이의 고백은 자신이 언어를 통한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자각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묵언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다)에서 글쓴이는 묵언의 시간이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만 열려 있던 시간들.'이라고 회고한다. 이는 타인이나 세상과 단절된 채 자아에만 매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일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묵언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으나, 이것이 자아에 매몰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다)에서 글쓴이가 묵언이라는 '고요했던 그 시간'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묵언을 통해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묵언으로 인해 자아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방법적인 묵언은 진실한 소통을 위한 우회라는 역설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다)에서 글쓴이가 시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날개'가 꺾였기 때문이며, 날개가 꺾인 것은 시보다 '삶'을 더 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세속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진실한 언어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묵언을 통해 시를 얻었던 경험을 글쓴이는 '시들이 천천히 날갯짓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말을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오히려 시의 진실한 언어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드러낸 것이다.

[32 ~ 34] (고전시가) 유방선, 「늙은 잣나무」 / 이신의, 「사우가」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가)의 화자는 '재목이 커서 끝내 쓰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오.', '일찍이 명당에 들어가 동량이 되었다네.'라는 시행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훌륭한 재목으로써 쓰인 곳이 많았던 늙은 잣나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나)의 화자는 '솔', '국화', '믹화', '대'를 바라보면서 독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덕목을 예찬하고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나)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늙은 잣나무를 의인화하여 시련을 이겨 낸 선비의 곧은 정신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나)뿐만 아니라 (가)에서도 상징적 어휘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③ (가), (나)에서는 모두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3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은 눈 속에서도 끄떡없이 피어나서 눈과 같은 빛을 발하고 있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한 시행이다. 이러한 매화의 속성이 바로 매화가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눈'과 매화는 모두 흰 빛을 내고 있으므로 '눈'과 매화의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을 통해 매화가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눈'과 매화의 색채 대비를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늙은 잣나무가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빈 언덕'을 제시하여 늙은 잣나무의 비상함과 의연함을 부각하고 있는 시행이다.
② ㉡의 '도리화'는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기에 늙은 잣나무와 대조되는 소재로서, 늙은 잣나무를 볼 때에는 그것의 외양이 아니라 내적 속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은 '바회'가 갖는 단단함과 그것을 딛고 선 '솔'의 강인함을 결합하여 위엄 있고 당당하게 서 있는 솔의 특징을 강조한 시행이다.
⑤ ㉤은 눈이 내려 추운 날씨도 아랑곳 않고 '창'을 여는 화자의 행위를 제시한 시행으로, 온갖 꽃은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푸른빛을 발하고 있는 대나무에서 지조와 절개를 확인하려는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보기 1>에서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관물의 방식으로 식물을 봄으로써 어떤 시련에도 퇴색하지 않는 영원성에 주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가)의 '눈서리'는 늙은 잣나무가 지닌 '천년의 푸르름'이라는 영원성을 시험하는 존재로서, 대상이 직면한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청풍'은 대나무가 반기는 존재로, 대상이 직면한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보기 2>에서 (가)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온 늙은 선비의 삶을 예찬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에서는 늙은 잣나무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동량'은 둘 사이를 매개하는 작품 내적 요소인 동시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부각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 1>에서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관물의 방식으로 식물을 보았기 때문에 대상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의 화자가 여느 사람들과 달리 '국화'의 귀함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관물의 방식으로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③ <보기 1>에서는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관물의 방식으로 관찰한 식물과 인간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를 드러냈음을 밝히고 있다. '특이한 물건'은 늙은 잣나무를 빗댄 표현으로, (가)의 늙은 잣나무와 (나)의 '믹화'는 모두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삶의 자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 1>에서는 식물이 발하는 일시적 아름다움보다 시련에도 퇴색하지 않는 영원성에 주목하였다. (가)의 '그늘'은 늙은 잣나무가 만들어낸 것으로 성글지만, '사시의 서늘함을 변치 않'는 영원성을 상징한다. 반면 (나)의 '온갖 곳'은 아름답지만 오간 데 없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쉽게 변하고 마는 일시성을 함축한다.

[35 ~ 38] (과학)

3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1문단에 의하면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은 암컷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암컷이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것은 미혼의 첫 번째 부인보다 기혼의 두 번째 부인이 자손 양육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의하면 일부 수컷의 세력권이 다른 수컷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암컷은 기혼인 수컷을 선택하기도 한다.
② 1문단에 의하면 암컷은 수컷을 선택할 때 수컷의 세력권 수준을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③ 6문단에 의하면 암컷 열세 마리 중 암컷 여섯 마리가 두 마리씩 우월한 세력권을 가진 수컷 세 마리와 짝을 지었고 암컷 일곱 마리가 미혼인 수컷 일곱 마리와 짝을 지었으므로, 수컷 열두 마리 중 열 마리가 배우자를 얻었다. 따라서 수컷 두 마리는 짝짓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④ 5문단에 의하면 일부다처제 임계점은 암컷이 미혼 대신 기혼을 택할 때 그 기혼의 세력권의 최저 수준을 뜻한다. 3문단에 의하면 일부다처제는 수컷의 세력권에 큰 차이가 있을 때 나타난다. 2문단에 의하면 모든 수컷의 세력권이 비슷하면 일부일처제나 일처다부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부다처제 임계점은 모든 수컷의 세력이 비슷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일부다처제를 선택하는 암컷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36. [출제의도] 지문에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3문단에 의하면 일부다처제 하에서는 암컷 두 마리가 수컷 한 마리와 짝을 지으므로 수컷의 세력권을 공유하게 된다. 이 경우 암컷은 수컷의 도움을 공유하게 되므로 수컷의 세력권이 암컷 한 마리가 한 마리의

수컷의 도움을 온전히 받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수컷의 세력권은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면서 획득하는 독점적 영역이다.

② 1문단에 의하면 암컷은 수컷을 선택할 때 수컷의 세력권 수준을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세력권 수준이 높을수록 암컷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③ 1문단에 의하면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은 암컷이 수컷의 세력권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정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④ 3~5문단에 의하면 암컷이 세력권 수준이 높은 수컷의 첫 번째 배우자가 될 때 양육할 수 있는 자손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수컷의 세력권은 암컷이 양육할 수 있는 자손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물론 이것은 일부다처제 임계 모형에 따를 때이다.

37.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의 정보를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3문단에 의하면 일부다처제는 수컷이나 암컷의 수가 아니라 수컷의 세력권 수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혼인 제도이다. 즉 일처다부제와 달리 일부다처제는 한쪽 성의 숫자가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수컷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혼인 제도가 일부일처제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의하면 모든 수컷의 세력권 수준이 비슷하면 암컷은 일부일처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일부일처제 하의 개체군에서는 모든 수컷들의 세력권 수준이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의하면 일처다부제는 암컷의 수가 수컷의 수보다 적을 때 나타난다.

④ 3~5문단과 <그림 1>, <그림 2>에 의하면 일부다처제 하의 개체군에서 두 번째 배우자는 일정한 손실을 입는다. <그림 1>에서 3번 암컷은 1번 암컷보다, 4번 암컷은 2번 암컷보다 자손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5번 암컷은 1번 암컷보다 6번 암컷은 2번 암컷보다 자손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두 번째 암컷이 첫 번째 암컷보다 자손 수가 적은 이유를 알 수 있다.

⑤ 일부일처제 하에서는 수컷 한 마리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일처다부제 하에서는 수컷 여러 마리가 양육에 도움을 준다. 2문단에 의하면 짝짓기를 하는 수컷의 수가 많을수록 암컷은 더 많을 자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38. [출제의도] 지문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지문 5문단에 따르면, 일부다처제 임계점(PT)이란 암컷이 미혼인 수컷의 열악한 세력권을 포기하고 기혼인 수컷의 우수한 세력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그 기혼 수컷의 세력권의 최저 수준을 말한다. 암컷이 번호 순서대로 수컷을 선택할 때, PT가 C와 D 사이로 이동하게 된다면, PT의 정의에 따라 D는 기혼 수컷의 세력권의 최저 수준보다 낮으므로, 4번 암컷은 D가 아닌 A를 택하게 될 것이다. 미혼보다 기혼의 수컷을 선택하는 일부다처제 임계점이 D보다 위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 관점은 '배우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존의 배우자가 받는 수컷의 양육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1번 암컷의 자손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의 관점에서 본다면 '1번 암컷도 4번 암컷과 양육 자손의 수가 동일해질 것'이라는 ④번은 적절하다. 이때 5번 암컷은 B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의 관점에서 보면, 1번 암컷의 자손 수가 줄어들어 3번 암컷의 자손 수와 같아지고, 2번 암컷의 자손 수도 줄어들어 4번 암컷의 자손 수와 같게 되므로, 1번 암컷의 자손 수가 2번 암컷의 자손 수보다 적어지지는 않는다.

② 두 경우 모두 세력권 수준이 가장 높은 수컷을 선택한 암컷은 1번이지만, <그림 4>에서 1번 암컷은 5번 암컷이 수컷 A를 선택했을 경우 5번 암컷과 자손 수가 같아진다. 이 경우는 3번 암컷이나 4번 암컷보다 오히려 자손 수가 적어진다.

③ <그림 3>보다 <그림 4>에서 PT 이상의 세력권 수준을 가지는 수컷들이 많다. 그런데 <그림 3>은 일부다처제를 선택한 암컷이 일부일처제를 선택한 암컷보다 자손 수가 많지만, <그림 4>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PT 이상의 세력권 수준을 가지는 수컷들이 많을수록 일부다처제를 선택한 암컷이 유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일부다처제를 선택한 암컷들의 자손 수가 두 번째 배우자의 자손 수로 통일된다는 관점이다. PT 이하의 세력권 수준을 가진 수컷을 선택한 암컷은 일부일처제를 선택한 것이므로 ㉠을 반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39 ~ 4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심청가」

3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②)

지문에서 심청은 인당수에 도달한 뒤, 물에 빠지기 전 망설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독백과 대화를 통해 심청의 두려운 심리 상태가 드러난다. 또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선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지문은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용궁으로 간 부분이다.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지문은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의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담담한 어조로 서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지문에는 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심청이 용궁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⑤ 지문에는 심청, 선인, 옥황상제, 시녀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공간적 배경인 인당수나 수정궁의 묘사와는 달리 이들의 외양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⑤)

㉡은 속세의 인물이 아닌 존재나 신적 존재 등을 언급하고 갖은 악기를 나열하여 풍악 소리를 표현하는 등 과장된 비유를 통해 초월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은 물결이 휘몰아치는 모습을 과장된 비유를 통해 묘사하였으나 선인들이 배를 타고 건너면서 물결을 잠재우기 위해 심청을 제물로 바치고 심청이 물에 빠지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은 심청이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심청의 죽음을 표상하는 비극적인 공간인 것이다.

② ㉡은 아버지를 위해 죽은 심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다. 따라서 ㉡에서는 심청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위기가 해소되고 있다.

③ ㉠에서 ㉡으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인물의 처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파도가 치는 모습을 '어룡이 싸우는 듯, 벽력이 나리는 듯' 등의 표현을 열거하여 형상화하였고, ㉡은 '태을진군 학을 타고 ~ 낭자한 풍악 소리 수궁을 진동한다.' 등의 표현을 장황하게 열거하며 형상화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보기>에서는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이 될 수 있나.'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장면화하여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심청이라는 인물의 형상을 대비적 시각으로 그려낸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를 망설이는 심청의 모습, 아버지를 걱정하는 심청의 모습,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선인들의 모습 등이 <보기>에서보다 상세하게 그려진다. 따라서 [A]에서는 <보기>에 비해 사건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② <보기>에서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이 될 수 있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A]의 '심청의 거동 보아라' 역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지만, 이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③ [A]에서 '못 보겠구나. 못 보겠네. 사람의 인정으로는 못 보겠네.' 등의 표현을 통해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선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제물로 바쳐지는 심청을 향한 동정과 연민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기>에서보다 인물 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⑤ [A]와 <보기>는 모두 심청이 인당수에 도달하여 물에 빠지는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42 ~ 45] (현대소설) 이청준, 「눈길」

4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윗글은 주인공인 '나'를 일인칭 서술자로 내세우고 있다. 서술자는 '노인'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면서 '노인'의 내면 심리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노인'과 자신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저지'임을 '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나 '더 이상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한숨을 삼킨다는 진술, 노인의 '머릿속엔 이미 꽤 구체적인 계획표'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 등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작중 인물인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나'의 시각에서 '노인'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윗글은 '노인'과 '나' 사이의 심리적 대립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내'를 중립적 인물이라 볼 수도 있으나,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에서 보듯 '아내'는 '나'를 꾸짖고 있으므로 '나'보다는 '노인'의 편에 더 가깝다. 또한 '아내'는 '나'에게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예요.'라고 하며 '나'를 질책하고 있을 뿐, '노인'과 '나'를 중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두 인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② 윗글의 공간적 배경은 노인의 집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의 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옷궤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다는 내용과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라는 부분 정도이다.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윗글에서 시대상을 보여 주는 소재로는 '지붕 개량 사업,' '도단', '장죽불' 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서술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윗글의 앞부분은 서술자가 그간의 사정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며, 중략 이후 부분은 방 안에서 노인이 지붕 개량에 대한 소망을 털어 놓고 '나'와 '아내'가 듣는 장면, 다음날 '아내'가 '나'를 추궁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소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노인'은 집을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비친 후 '나이를 먹으면 애기가 된다더니 이게 다 나이 먹고 늙어 가는 노망기 한가지'라며 마치 자신의 소망이 일시적인 노망기 탓인 것처럼 말한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나는 이제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라는 진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 집을 고치고 싶어 하는 소망은 '노인'의 진심이며 '노망기'를 언급한 것은 자식에게 부담감을 지우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지붕 개량 사업'은 명칭대로만 한다면 과거의 초가지붕을 현대식 함석지붕이나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붕만 개량하지 않고 집 전체를 수리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노인'은 '이참에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다 방 한 칸쯤이나 더 늘여 내고 지붕도 도단으로 얹어 버리면 싶긴 하더라만…….'이라고 하여 지붕 개량뿐만 아니라 집을 확장하고자 하는 희망을 밝히고 있다.

② '노인'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5만 원이나' 내준다거나 '형수'가 밭일을 해 주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일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생각보다 비용을 적게 들여서 집을 고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이미 마음속으로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③ '노인'은 '늙은이 냄새가 싫어 그런지' '밤마다 남의 집으로 잠자릴 얻어 다니는 저것들 에미 꼴도 모른 체하기는 못 할 일'이라고 말한다. '저것들 에미'란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세 조카아이'의 '홀어머니', 즉 '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노인'이 집을 고쳐야 하는 이유로 방이 하나뿐이라서 '형수'가 자신과 한방에서 자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번에는 면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 주더라만 내년엔 또 이번처럼 어떻게 잠잠해 주기나 할는지.'라는 '노인'의 말에서 드러나듯, '지붕 개량 사업'은 면사무소, 즉 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하기사 면 사람들 무서워 집을 고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름'이라고 덧붙이는 '노인'의 말을 통해 '면'을 거론하는 것은 지붕 개량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기 위한 핑계이며, 이를 통해 '노인'은 지붕을 개량하면서 집도 넓히고 싶은 자신의 속뜻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④)

'노인'은 장죽을 빨아 대면서 혼잣말처럼 지붕 개량에 대한 소망을 늘어놓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비용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내비친 소망이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자, '노인'은 '불이 꺼진 장죽'을 연신 빨아 댄다. 이때 장죽의 담뱃불이란 노인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장죽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곧 노인의 소망이 무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불을 살려 보고자 ㉣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소망이 무산될까봐 조바심하는 심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나'가 '노인'의 희망을 '엉뚱한 꿈'이라고 표현한 것은, '노인'의 희망의 실현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 '나'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희망은 지붕을 개량하고 집을 조금 넓히는 것인데, 이는 집이 좁아 남의 집에 잠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형수' 때문이기도 하므로, 가족을 위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노인'이 가족은 아랑곳 않을 만큼 판단력을 상실한 데 대한 '나'의 우려가 드러난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노인'이 자신의 생명을 '날짐승'과 비교하는 것은 '노인' 세대가 자신을 낮추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자식이 성장할 때 변변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기 위해 ㉡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노인'은 애초에 자신이 '나'에게 부모로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무반응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러면서도 끝끝내 내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진 않았다.'에서 '노인'이 '나'에게 원망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 '혼잣말 비슷'한 '푸념'이라는 것은 '지붕 개량' 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나'가 자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표현이라 볼 수 없다.

⑤ ㉤에서 '아내'가 말참견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은 '노인'과 '나'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아내'로서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을 모른 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다음날 아침 '아내'가 '나'를 질책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이 '노인'과 '나' 사이의 대립에 간여하지 않으려는 '아내'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하는지 평가한다.(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윤리 의식의 변화마저 겪고 있는 이 세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임을 '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인'이 '나'에게 적극적인 봉양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아들의 성장 과정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또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임을 '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식에게 봉양을 요구하지 못하는 '노인'의 처지를 드러낸 것일 뿐, 자식 세대의 윤리 의식이 달라진 데 대한 '노인'의 절망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눈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나'를 통해 근대화 세대의 초상을 그려 내고 있다고 하였다. 윗글에서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이란 성장 과정에서 '노인'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눈길」은 노모를 봉양할 나이가 되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나'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을 마쳤다는 것은 '나'가 성인이 되어 이제는 부모를 봉양할 나이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놈의 도리'를 엄두도 못 냈다는 것은 성인이 된 그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노인'을 충실히 봉양할 수 없는 처지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노인'과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노인'의 소망을 들으면서 '노인에 대해선 빚이 없음을 골백번 속으로 다짐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못 받았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굳이 갚을 일이 없다는 듯한 태도이다. 그렇지만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나'가 '노인'의 소망을 들어 주기 힘든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데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효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부모에게로 받은 것이 없으니 갚을 의무도 없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을 잘 모시고 싶지만 형편상 그렇게 하기 힘든 현실에서 생기는 자책감을, '나'는 '노인'에게 빚이 없다는 말로써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심리적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내'는 '노인'과 '나'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에 대해 가진 불만은 '노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에 있다.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느냐는 '아내'의 말은 '노인'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울러 웃어른인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환기한 것이다. <보기>에서 '나'와 '아내' 세대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윤리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아내'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효 의식을 경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